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 금주의 GVC Insight



#### 최신 GVC 해외 이슈

**【공급망, 미국】** 테슬라, 공급망 강화를 위해 美 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

**【리튬, 미국】** 美, 리튬 채굴업체에 8천700억원 자금지원

**【리튬, 미국】** GM 대규모 광산 투자로 리튬 경쟁 선도

**【리튬, 아르헨티나】** 아르헨 라리오하주, 리튬 탐사 허가 중단 법안 공포

**【니켈, 필리핀】** 필리핀 정부, 니켈에 수출관세 부과 방안 검토, 니켈 생산 기업 강력 반발

**【수출 규제, 미국·중국】** 美, 자국 기업의 中 화웨이 수출 전면 금지 추진

**【보조금, EU】** EU,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강조

**【자동차, EU】** EU 집행위, 내연기관 대형차량 CO2 배출 금지 2040년 이후 시행 전망



#### GVC 뉴스 더하기

- ① EU,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통신문 발표
- ② EU, 1.27일 對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 발표



#### GVC 돋보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GVC 전문가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전시회·상담회 안내
- ② 중국 단가비자 일시 발급 중단 관련 지원 사업 안내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최신 GVC 해외 이슈

### ■ 【공급망, 미국】 테슬라, 공급망 강화를 위해 美 네바다州 공장에 4.4조원 투자

- 테슬라는 2023년 1.24일 네바다州 리노 인근에 이차전지·전기트럭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36억 달러(한화 4조4,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 테슬라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신규 배터리 공장의 리튬이온 배터리 연 생산능력은 200만 대라고 밝힘
- 테슬라 CEO는 2020년대 말까지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 10~12개 생산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스틴 공장에 7억500만 달러(약 한화 9천60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출처: 연합뉴스(1.25), 조선비즈(1.2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 【리튬, 미국】 美, 리튬 채굴업체에 8천700억원 자금지원

- 1.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美 에너지부는 네바다州에서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호주 광산업체 아이어니어(포드와 공급계약 체결)에 최대 7억 달러(약 8천700억 원) 자금 대출 승인
  - 이번 자금은 네바다州 리튬 광산 부지에 탄산리튬 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입
- 美 에너지부, “자금지원을 통해 네바다州 리튬 광산에서 매년 37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리튬을 확보”했다고 발표
  - 로이터, 美 정부가 에너지부 대출을 통해 리튬 채굴 프로젝트에 처음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고 짚음

출처: 연합뉴스(1.16)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 【리튬, 미국】 GM, 대규모 광산 투자로 리튬 경쟁 선도

- GM은 1.31일 미국 최대 리튬 매장지인 네바다州 ‘태커패스(Thacker Pass)’ 광산 개발을 위해 미국 리튬 생산업체인 리튬 아메리카스에 자동차 제조업체 중 최대 규모인 6.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 GM, '23년 캐딜락 리릭(Cadillac Lyriq)·GMC 허머(Hummer) 생산 확대 추진 중. 쉐보레 에퀴노스(Equinox)·블레이저(Blazer)·실버라도(Silverado) 전기차 버전도 출시
  - 태커패스 광산 독점권 확보 통해 GM은 '26년부터 연간 차량 100만 대 분량의 리튬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게 될 전망

출처: Bloomberg(1.31), Financial Times(1.3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 【리튬, 아르헨티나】 아르헨 라리오하州, 리튬 탐사 허가 중단 법안 공포

- 아르헨티나 라리오하州 리카르도 킨텔라 주지사는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기 승인한 모든 탐사 허가를 중단하는 법안을 주지사령으로 공포
  - '22.12월 라리오하州 의회는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관심지역’을 확립한다는 안을 포함한 관련법안을 입법하였으며, ‘관심지역’내 旣승인한 모든 탐사, 채굴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 명시

- 아르헨티나 광업기업가단체는 “리튬 탐사 허가 중단은 사회경제적 발전 가능성 손상을 초래”한다며, 법안 거부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 표명
  - 아르헨티나 헌법상 지하자원의 소유권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어 리튬 탐사 및 개발은 주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
  - 라리오하주, 관련 법안 제정前 재생에너지·광물회사 칼파(Kallpa) 설립, 캐나다 광물회사 오리진 리소시스 (Origin Resources)에 2만1천 헥타르의 탐사허가권을 승인한 바 있어 논란 예상
    - \* 아르헨티나는 칠레·볼리비아와 함께 남미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5%(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4위)를 보유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2.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 【니켈, 필리핀】 필리핀 정부, 니켈에 수출관세 부과 방안 검토, 니켈 생산 기업 강력 반발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니켈 수출에 최대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리핀 니켈 광산회사들은 “광산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음
  - 필리핀 니켈광산협회 단테 브라보 회장은 정부의 방침은 니켈 산업을 망치게 할 것이라고 경고, 그는 정부가 광산 업계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
- 대한민국 배터리 업계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의 신규 세금 정책은 한국 배터리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한민국 이차전지 회사들은 중국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회사들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중이므로 니켈 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음

출처: 글로벌 이코노믹(1.3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 【수출 규제, 미국·중국】 美, 자국 기업의 中 화웨이 수출 전면 금지 추진

- 美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퀄컴 등 자국 기업의 中 화웨이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 추진 중
  - '19년 트럼프 정부는 미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5G 핵심 기술 부품수출을 제한한 바 있으나, '23년 5G와 무관한 일반 부품 공급까지 전면 차단하는 강경 조치 추진
    - \*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화웨이에 부품 공급 제한('19.5월) → SMIC과 거래 제한('20.12월) →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22년10월) →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전면 통제('23년 추진)
- 중국 외교부, 美 화웨이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전면 중단 소식에 우려를 표하며,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인텔·퀄컴·AMD 등 美 기업 매출 중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미국기업의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
    - \* 화웨이에 인텔·AMD는 노트북 프로세서를, 퀄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수출 중
- 일본·네덜란드도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동참하기로 합의
  - 네덜란드 ASML(반도체 장비 기업)은 제재 대상에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포함했으며, 일본은 올해 봄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도(산케이신문, '23.2.5)

출처: 블룸버그(1.31), 한국경제(1.31), 서울신문(1.3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 【보조금, EU】 EU,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강조

- EU 정상회의(2.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이 지난 2일 수정되며 '이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라는 내용이 추가·강조됨
  - 앞서 EU는 '그린딜 산업정책(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 EU 보조금 체제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하고 보조금 지급과정을 간소화·신속화함
  - 또한, SUR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된 언급이 삭제되고 유럽국부펀드 관련 내용도 함께 수정됨
    - \* SURE 프로그램 :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코로나19 등 위기로 인한 실업 급증의 대응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출하는 제도로 이번 초안에서는 독일의 반발로 인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 등 동부/중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우려(EU 국가별 경제규모의 차이에 따른 국가별 보조금 차이로 단일시장이 와해 될 수 있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2.3)

## ■ 【자동차, EU】 EU 집행위, 내연기관 대형차량 CO2 배출 금지 2040년 이후 시행 전망

- EU가 2.14일(화) 발표할 '대형차량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가 가능할 전망
  - 작년 말 EU는 2035년부터 소형화물차(승용차와 밴 등)의 CO2 배출 금지를 통해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반면, 대형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 \*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기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2030~2034', '2035~2039' 및 '2040년 이후' 등 세 개의 보고기간(reporting periods)을 규정하고, 향후 기간 중 배출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사실상 내연기관 대형차량 판매금지(CO2 배출 금지)는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 환경시민단체는 “유럽의 화물차 평균수명이 18년 정도임을 고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머스크 해운, 유니레버 등 대기업도 이에 동조
  - 반면,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는 “2025년부터 대형차량에 대한 CO2 규제 강화는 기술성숙도 및 기술 보급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고 개정 초안이 2029년까지 CO2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것에 안도를 표함
- 한편, 유럽 내 배터리 및 수소 충전망 구축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마련을 위해 협상 중인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EU 이사회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는 상황
  -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는 이에 대형차량 CO2 규제의 필수 전제조건인 충전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2.3)



## GVC 뉴스더하기 ① : EU,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통신문 발표

\* 그린딜 :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EU 로드맵

- ◆ EU 집행위는 2.9~10일 개최될 EU정상회의의 논의 안건 토대 마련을 위해 2.1일 'EU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기업 및 EU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 EU 집행위, 2.1일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 발표

- EU 집행위, 그린딜 입법 및 이니셔티브 수립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해 통신문\* (Communication) 발표
  - \*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EU 역내 산업보호 및 투자육성을 목표로 하며 주요 산업별 생산 목표, 규제 완화 방안, 청정기술 보조금·세제부담 완화 내용\* 포함
  - \* 까다로운 EU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
- 세부 법안은 3월 정상회의(3.23~24일) 전 집행위가 제안할 것으로 예측
- EU '핵심 원자재 법'과 연동하여 추진 중

#### 〈 그린딜 산업계획(안) 세부 내용 〉

- ① (규제) 산업별 생산 목표 설정·승인 절차 간소화·유럽 표준 수립
  - (목표) EU 녹색 전환 산업별 '30년까지의 생산 목표 설정
  - (승인 절차 간소화) 절차별 제한 시간 설정, 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 '원스톱샵' 도입
    - \*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인허가 승인이 불필요하도록 승인창구 일원화
  - (표준) 수준 높은 EU 표준 개발, 역내 업계에 경쟁 우위 제공
- ② (보조금) 국가 보조금 임시 조치 개정 통해 관련 규제 제한적 완화
  - 재생에너지 분야 국가 보조금 승인 절차 간소화, 지원 범위 확대 예정
  - 집행위 승인이 필요한 국가 보조금 사전 신고 기준 상향 조정
  - '전략적 탄소중립 부문' 신규 생산설비 투자 유치를 위한 회원국의 세제 혜택 제공 허용
- ③ (재원) EU의 '회복·복원력 기금(RRF)'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
  -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및 시장 파편화에 대한 우려로 'EU 통합기금'을 강화해야 한다면, 신규기금 마련에 모호한 입장
  - 기존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의 용도 변경 통한 투자 확대 제안
    - \* '회복·복원력 기금(RRF)'은 경제회복기금(NGEU) 총 예산의 약 90% 차지, 7,238억 유로 규모
- ④ (기술·공급망)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생각이 비슷한(like-minded) 국가 간 "핵심 원자재 클럽" 추진
  - 역외보조금 규정 등 무역 방어 조치 충분히 활용
  - 친환경 산업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 인력 양성 노력 확대하고 원활한 인력 이동을 위해 국가 간 자격 인정 개선

### ■ EU 집행위, 동 산업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핵심 원자재법'은 3.8일 발표 예정

- 로이터통신, EU 집행부가 3.8일 '핵심 원자재법' 발표할 것으로 예상
  - \* 핵심 원자재 선정 및 역내 생산 확대 위한 법률체계 재정비, 모니터링 관리체계·표준 구축, 공급망 다변화 등 포함 예정
-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집행위원, "EU 역내 주요 원자재 수요의 25%를 충족하기 위해 '30년까지 70억 유로, '40년까지 130억 유로 이상 필요하다"고 언급



## GVC 뉴스더하기 ② : EU, 1.27일 對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 발표

◆ EU 이사회는 러시아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제재 기한을 '23.7.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동 제재조치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철강·시멘트·셀룰로오스·합성수지 등 원자재·중간재 수출이 제한되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 EU 이사회,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對러 제재 조치를 오는 7.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

\*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응해 '14년 이후 경제 제재(특정 러시아 은행·기업의 EU 주요 자본 시장 접근 제한, 러시아 금융 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중개 금지, 방위 관련 자재 수입·수출 금지 등)를 연장해옴

-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차단을 통한 러시아 산업경쟁력 악화 및 자금 통제를 위해 EU는 러시아 개인·기업·기관의 EU 시장접근 제한 및 교역 제재 발표
- 이 외, EU는 러→우크라 침공 1주년(2.24) 앞두고 추가 제재 준비 중
- 경유 및 중유 가격상한제(배럴당 경유 100달러, 중유 45달러 등) 설정 논의에 착수했으며 (1.27~), 원자력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

#### 〈 EU의 對러 제재 현황 (1.31일 기준) 〉

| 분야       |    | 내용                                                                                                                                                                                                                                                  | 분야 | 내용                                                                                                                                                                                                                                                                                                                                                                   |
|----------|----|-----------------------------------------------------------------------------------------------------------------------------------------------------------------------------------------------------------------------------------------------------|----|----------------------------------------------------------------------------------------------------------------------------------------------------------------------------------------------------------------------------------------------------------------------------------------------------------------------------------------------------------------------|
| 교역       | 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상품)</b> 첨단기술(퀀텀·반도체·전자기기·소프트웨어), 민감 기계류·운송장비, 에너지 산업기기, 이중용도 품목, 항공 및 우주 산업 품목·기술, 사치품 등</li><li>· <b>(서비스)</b> 경영, 회계, 엔지니어링, 건축, IT, 법률, 시장·여론조사 등</li></ul>                                          | 운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육상)</b> 러시아 도로운송 사업자의 EU 입국 금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 식품·농산물·의료물자 운송, 인도적 지원 목적 운송 예외</li></ul></li><li>· <b>(해운)</b> 러시아 국적 및 등록선박 약 2,800대의 EU 항구 접근 금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 일부 에너지·농식품·핵연료 및 인도적 물품 예외 가능</li></ul></li><li>· <b>(항공)</b> 러 국적 항공기 EU 공항 및 영공 비행 금지</li></ul> |
|          | 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상품)</b> 화석연료, 철강, 금, 보석, 시멘트, 목재, 재지, 플라스틱, 수산물(캐비어 등), 리큐르(보드카 등), 화장품, 담배</li><li>· <b>(에너지)</b> 원유*(22.12월부), 디젤연료 포함 정제석유 제품(23.2.5일부)<br/><br/>* 원유 가격 상한제 : 배럴당 60달러 적용(22.12월부, G7·호주)</li></ul> |    |                                                                                                                                                                                                                                                                                                                                                                      |
| 개인·법인·기관 |    | 개인 1,386명, 171개 기업 및 금융·미디어 기관 자산동결 및 EU 입국 금지                                                                                                                                                                                                      |    |                                                                                                                                                                                                                                                                                                                                                                      |

### ■ 이전 EU는 9차 제재 프로그램까지 발효하여 러시아 경제 압박 중

#### 〈 EU의 對러 제재 추진 내역 〉

| 구분          | 세부 내용                                                                                                                                                                                                                                |
|-------------|--------------------------------------------------------------------------------------------------------------------------------------------------------------------------------------------------------------------------------------|
| 1차(22.2.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우크라이나 FTA 협정에 DNR/LNR 분쟁지역 제외 및 EU와 무역금지</li> <li>· Bank Rossiya, Promsvyazbank, Vnesheconombank 제재</li> </ul>                                                                           |
| 2차(22.2.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우주·방위산업, 해운·조선사 및 일부 국영 기업의 EU 증권거래소 상장금지</li> <li>· 러 국적자 및 거주자는 EU 은행에 특정 금액 이상 예치 금지</li> <li>· EU 중앙예탁결제원에 러 고객 계좌 보유 금지 및 유로 표시 증권 판매 금지</li> <li>· Bank Otkritie 추가 제재 등</li> </ul> |

|              |                                                                                                                                                                                                                                                                                                                                                                                     |
|--------------|-------------------------------------------------------------------------------------------------------------------------------------------------------------------------------------------------------------------------------------------------------------------------------------------------------------------------------------------------------------------------------------|
| 3차(22.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 은행 7곳 SWIFT 퇴출 및 우회방지 조치 도입. 전환기간 고려 3.12일부 적용</li> <li>- VTB, Otkritie, Rossiya, Novikom, Sovcom, VEB, Promsvyazbank</li> <li>러 직접투자자금 공동 출자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li> <li>러시아투데이(RT), 스푸트니크 역내 정보 전파, 방송 면허 승인 등 금지</li> </ul>                                                                                                                   |
| 4차(22.3.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WTO 최혜국 대우 부여 철회</li> <li>주요 러시아 국영기업들과의 모든 거래 금지</li> <li>러 철강 수입 금지, 이로 발생한 잔여 수입 쿼터 제3국 배분</li> <li>EU산 사치품(차량, 보석류) 대러 수출 금지</li> <li>이중용도 및 러시아 국방 기술 관련 제품 대한 수출제한 강화, 적용대상 확대</li> </ul>                                                                                                                               |
| 5차(22.4.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 생산 혹은 수출된 석탄 및 고체 화석연료 수입 및 이적 금지 (22.4.8 이전 체결 계약 이행 위해 '22.8.10까지 미적용)</li> <li>러 국적 및 등록 선박 약 2,873대 EU 항구 접근 금지</li> <li>러 및 벨라루스 육상운송 사업자의 EU 통한 상품운송, 이적 금지</li> <li>첨단기술 상품 대러 수출 금지 및 목재, 시멘트, 비료 등 수입 금지</li> <li>VTB, Sovkom, Otkritie, Novikombank 등 4곳 거래 금지 및 자산 동결</li> <li>러 개인, 법인 대상 1만 유로 이상 EU 역내 가상자산 거래 금지</li> </ul> |
| 6차(22.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월 이내 석유 수입 및 연말까지 석유제품 수입 단계적 중단</li> <li>스베르방크 및 모스크바 신용은행, 러 농업은행 SWIFT 결제망 차단</li> <li>3개 러 국영 방송사의 EU 내 방송 및 콘텐츠 유통 전면 중단</li> <li>고위 러시아 군 장교 추가 제재, 회계법인·컨설팅사 러 기업에 서비스 제공 금지</li> </ul>                                                                                                                                             |
| 7차(22.7.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지 및 조정 제재 패키지로 통상 6.5차 제재로 불림</li> <li>보석류 포함한 러시아산 금의 직간접 구입, 수입, 유통 금지</li> <li>이중 용도 및 첨단기술 수출 통제 대상에 50여 품목 추가</li> <li>러 선박의 EU 항구 입항 제한 관련, 운하까지 접근 제한 강화 등</li> </ul>                                                                                                                                                                |
| 8차(22.1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국을 경유 해상운송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제시</li> <li>러시아 기술·군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對러시아 수출 제한</li> <li>러시아 교역·서비스 산업 추가 제재</li> <li>러시아 개인 7명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li> </ul>                                                                                                                                                                                        |
| 9차(22.12.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드론 엔진 수출 제재</li> <li>이중용도 기술·품목 수출 제재</li> <li>광업 투자 제재</li> <li>'러시아 지역 개발은행(Russian Regional Development Bank)'과의 거래 제재</li> <li>러시아 광고·시장조사·설문조사 서비스 제재</li> <li>4개 러시아 매체의 브로드캐스팅 라이선스 제한</li> <li>러시아 141명 개인·49개 기관 제재</li> </ul>                                                                                                      |
| 기간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대러 제재조치를 오는 7.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li> </ul>                                                                                                                                                                                                                                                                                 |

\* EU 집행위 [對러 제재 현황 공유 링크](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sanctions-against-russia-explained/#sanct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sanctions-against-russia-explained/#sanctions>)

## ■ EU 집행위원장, 러-우 전쟁이 1주년을 맞이하는 2.24일까지 對러 10차 제재 패키지 발표 계획

- EU 집행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G7과 함께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추가 가격상한제\* 도입을 시도하겠다고 시사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러-우 전범을 기소하기 위해 '침략범죄 기소센터\*\*'를 설립할 것이라 언급

\* 원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로 러시아가 입는 피해는 매일 1억6천만 유로(약 2,150억원)에 달할 듯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범조사를 상시 실시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건에 대한 관할권은 없음



## GVC 돋보기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EU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가 新 환경·무역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3.10월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22.12.18). 그간 추진된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 (개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보정하고자 EU가 역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
- (취지) 역내 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 등 비용 증가로 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역내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이 우려되자 EU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한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 EU 집행위가 '19.12월 유럽 그린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선언한 후, '21.7월 입법안이 발표되었고 수정안('22.5월)과 개정안('22.6월)을 거쳐 '22.12월 최종 합의에 도달
- (입법안) '21.7월 EU 집행위원회는 'Fit for 55' 패키지에 CBAM 초안을 발표, '23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품목에 시범 적용 후, '26년부터 본격 시행하며 직접배출에 대해서만 과세
  - \* Fit for 55 : EU의 '90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12개 조치(탄소가격 책정,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에너지 세제 개정, 도로 수송부문 개편, 지속가능한 수송연료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등)
- (수정안) '22.5월 유럽의회는 입법안보다 더 강력한 CBAM 수정안을 제안, 시행을 '25년으로 앞당기고 무상할당권\*을 '30년에 전면 폐지하며, 과세대상에 간접 배출과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
  - \* EU는 역내 산업보호와 탄소누출을 방지하고자 EU-ETS 대상 품목에 대해 무상할당권을 제공
- (개정안) 유럽의회에서 강화된 CBAM 수정안은 '22.6월 개최된 본회의에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통과, 전환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고 시행도 '27년으로 연기하였지만, 대상품목 및 과세대상은 수정안과 동일
- (최종안) '22년 12월 18일, EU 이사회·유럽의회·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방식과 일정에 최종 합의하였고 최종안은 다음과 같음
  - (도입시기) CBAM은 '23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
  - (적용품목) 탄소집약적이고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6개(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제품
    - \* 전환기간 만료 전에 EU-ETS 대상 부문에서 생산된 다른 품목(일부 하류부문 제품과 합의 기간 동안 대상 품목 후보군으로 확인된 제품)의 CBAM 포함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
  - (무상할당) '26년부터 '34년까지 CBAM 적용부문의 EU-ETS 무상할당량을 단계적으로 폐지
  - (과세대상) 직접배출량만 포함하며, 간접배출량은 전환기 동안 방법론을 마련하여 이후 과세 추진
  - (과세방법) 전환기 동안은 수입하는 분기마다 수입품의 직접배출에 따른 내재배출량 및 기납부 탄소비용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하여 제출
    - \* (시행)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6년부터 수입업자는 대상 품목의 수입량과 내재배출량을 보고하고, 총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CBAM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
  - 단, '26~'34년 동안에는 CBAM 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EU 산업체에 EU-ETS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인증서 제출량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됨

##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입법안부터 최종안까지 내용 비교 〉

|        | 입법안('21.7월)                                                                                                            | 수정안('22.5월)                                                                                                                     | 승인안('22.6월)                                                                                | 최종안('22.12월)                                                                                   |
|--------|------------------------------------------------------------------------------------------------------------------------|---------------------------------------------------------------------------------------------------------------------------------|--------------------------------------------------------------------------------------------|------------------------------------------------------------------------------------------------|
| 도입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기) '23~'25년</li> <li>· (시행) '26년부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기) '23~'24년</li> <li>· (시행) '25년부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기) '23~'26년</li> <li>· (시행) '27년부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기) '23.10월~'25년</li> <li>· (시행) '26년부터~</li> </ul> |
| 적용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 등 5개 품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품목+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안과 동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품목+수소</li> </ul>                                   |
| 무상할당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년부터 10년간 10%씩 감축</li> <li>· '35년 전면 폐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부터 4년간 10%, 20%, 30%, 40%씩 감축</li> <li>· '30년 전면 폐지 및 EU ETS를 모든 산업에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년부터 감축</li> <li>· '32년 전면 폐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년부터 '34년까지 단계적 폐지</li> <li>· '35년 전면 폐지</li> </ul> |
| 주관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개 회원국이 각자 주관기관 설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집행위가 CBAM 주관기관 설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안과 동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안과 동일</li> </ul>                                    |
| 과세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만 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배출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안과 동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배출량만 포함 (전환기 이후 간접배출량도 포함 가능)</li> </ul>            |
| 과세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업체가 CBAM 적용품목 수입 시 탄소배출량 만큼의 CBAM 인증서 구매</li> </ul>                         |                                                                                                                                 |                                                                                            |                                                                                                |
| 감면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 수입업체는 해당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감면을 요청 가능</li> </ul>        |                                                                                                                                 |                                                                                            |                                                                                                |
| 인증서 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ETS 주간 경매 종가의 평균값을 차주 CBAM 인증서 가격에 적용 (배출권 가격은 매주 말일 EU 관보에 게재)</li> </ul> |                                                                                                                                 |                                                                                            |                                                                                                |
| 면제국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가진 국가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면제</li> </ul>                  |                                                                                                                                 |                                                                                            |                                                                                                |

### ■ 한국의 對EU 철강·알루미늄\* 수출 시 CBAM 도입에 따른 내재배출량·인증서 비용 추정

\* (對EU CBAM 수출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 철강 27억 6,300만 달러(93.6%), 알루미늄 1억 8,900만 달러(6.4%), 비료 79만 달러(0.03%) 순으로 철강이 압도적('18~'20년 기준, 무역협회·Eurostat 통계자료 분석)

- 한국의 對EU CBAM 내재배출량은 철강 306.6만톤과 알루미늄 1.6만톤으로 추정('21.9월 기준)
- 내재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비용은 2,596억원으로 추정(철강 2,583억원, 알루미늄 14억원)
- 이는 한국의 對EU 품목별 수출액('18~'20년 평균) 대비 철강 8.1%, 알루미늄 0.6%에 해당, 이는 철강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1.7배, 알루미늄은 0.15배 → 철강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매출액 영업이익률('18~'19년 평균)은 철강 업종이 4.9%이며 비철금속 업종이 4.1%



## GVC 전문가: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나을

- ◆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E.O.14017)**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급망 핵심 교역품목 리스트** 초안을 공개하였다. 앞으로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서 중요해질 산업과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자.

### ■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의 구조

- 상무부가 '22.10월 공개한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은 ▲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 4개 부문 2,409개 품목으로 구성

〈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의 구조 〉

| 부문                       | 하위부문                                                                                              | 설명                       | 가공단계                | 품목수*  |
|--------------------------|---------------------------------------------------------------------------------------------------|--------------------------|---------------------|-------|
| 핵심광물 및 소재<br>(이하 "핵심광물") | -                                                                                                 | 첨단산업에서<br>수요되는 광물        | 원료,<br>가공품          | 271   |
| 에너지                      | ① 탄소포집<br>② 전력망<br>③ 연료전지<br>④ 수력<br>⑤ 대용량배터리<br>⑥ 네오디뮴영구자석<br>⑦ 원자력<br>⑧ 백금족 금속<br>⑨ 태양광<br>⑩ 풍력 | 신재생에너지·<br>탄소중립<br>관련 품목 |                     | 644   |
| ICT                      | ① 시청각 장비<br>② 컴퓨터장비<br>③ 기타 전자부품<br>④ 반도체<br>⑤ 반도체/전자부품<br>⑥ 통신/네트워크장비                            | 정보통신산업<br>관련 품목          | 원자재,<br>자본재,<br>최종재 | 387   |
| 공중보건                     | ① 개인보호장비(PPE)·내구성의료기기(DME)<br>② 의약품·원료의약품<br>③ PPE·DME (원료)의약품<br>④ 검사·진단 (원료)의약품<br>⑤ 검사 및 진단기구  | 의료·의약품<br>관련 품목          |                     | 1,107 |
| 합계(중복포함)                 | 2,409                                                                                             |                          |                     |       |

\* 품목은 미국의 HS코드인 HTSUS 8~10단위 기준 / 자료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을 기반으로 저자 정리

- 美 상무부는 1개월간(22.10.4~11.3)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취합된 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핵심품목 리스트와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동향 분석 결과, ①친환경·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산업 비중이 높고 ②對중국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전체품목과 핵심품목에서 모두 1위 수입대상국이며, 對중국 핵심품목 수입의존도는 '22년 1~8월중 19.8%로 동기간 對중국 전품목 수입의존도(16.9%)를 2.9%p 상회
- 중국으로부터의 전체품목 수입비중은 하락 추세인 반면 핵심품목 수입비중은 상승하여 리스크 확대

〈미국의 전체/핵심품목 연간수입액 상위 3개국 추이 ('19~'22.8)〉

(단위: 기간 전체/핵심품목 총수입액 대비 %)

| 구분   | 순위 | 2019 |      | 2020 |      | 2021 |      | '22.1~8 |      |
|------|----|------|------|------|------|------|------|---------|------|
|      |    | 국가   | 비중   | 국가   | 비중   | 국가   | 비중   | 국가      | 비중   |
| 전체   | 1  | 중국   | 18.1 | 중국   | 18.6 | 중국   | 17.9 | 중국      | 16.9 |
|      | 2  | 멕시코  | 14.3 | 멕시코  | 13.9 | 멕시코  | 13.6 | 멕시코     | 13.9 |
|      | 3  | 캐나다  | 12.8 | 캐나다  | 11.6 | 캐나다  | 12.6 | 캐나다     | 13.7 |
| 핵심품목 | 1  | 중국   | 19.5 | 중국   | 22.0 | 중국   | 18.3 | 중국      | 19.8 |
|      | 2  | 멕시코  | 13.8 | 멕시코  | 13.3 | 멕시코  | 13.0 | 캐나다     | 14.1 |
|      | 3  | 캐나다  | 12.6 | 캐나다  | 9.7  | 캐나다  | 12.7 | 멕시코     | 12.1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對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핵심품목은 156개(7.7%)로 파악됨

#### 〈미국의 對중국 수입의존도별 핵심품목 개수 (’22.1~8)〉

(단위: %, 개)

| 수입의존도                               | 품목 수 | 부문별 품목 수(중복) |     |     |      |
|-------------------------------------|------|--------------|-----|-----|------|
|                                     |      | 핵심광물         | 에너지 | ICT | 공중보건 |
| 100*                                | 46   | 1            | 2   | 7   | 36   |
| 90 <sup>이상</sup> ~100 <sup>미만</sup> | 56   | 3            | 5   | 10  | 40   |
| 80 <sup>이상</sup> ~90 <sup>미만</sup>  | 54   | 3            | 5   | 13  | 37   |
| 70 <sup>이상</sup> ~80 <sup>미만</sup>  | 60   | 7            | 8   | 11  | 38   |
| 소계                                  | 156  | 7            | 12  | 30  | 113  |

주: 품목은 미국 HS 8~10단위 기준 (핵심품목 리스트 원문에 따름), 수입액은 ’22.1~8월 누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텅스텐(핵심광물), 백금족 금속(에너지), 천연흑연(ICT) 등 첨단산업용 광물 자원의 對中의존도가 특히 높음

\* 미국의 광물 자원 對中의존도 (’22.1~8월, %): 텅스텐(90.5), 백금족 금속(52.0), 플레이크형 천연흑연(73.2) 가루형 천연흑연(75.2)

- 노트북(HS 847130)도 미국의 연간수입액이 557억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며, 對中의존도가 90%를 상회하여 리스크가 큰 품목

- 배터리·의약품 분야 對중국 수입액과 수입의존도 역시 ’21년 이래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 美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핵심품목 리스트 내 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업종에 따라 상세 의견은 차이가 있었음

- 제출된 총 27건의 의견서 중 21건이 품목 유지·추가를 요청
  - 美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급망 관리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
- 3건은 시장에 발생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음
  - 무선통신·배터리·의약품 등 업종은 시장 특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청
- 그 외 3건은 기타 내용

#### ■ 결론 및 시사점

- 핵심품목 리스트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미국의 선제조치로 보임
- 향후 미국의 기술 관련 블록화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될 가능성 높음
- 우리나라는 자원수입 기반의 제조강국으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향후 공급망 재편 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배터리·통신네트워크장비 분야 참여를 검토하며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할 것
  -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협의체에 적극적 참여하고(정부), 수입선다변화·핵심품목 내재화(민간)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다각적 경제안보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



##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전시회·상담회 안내

### ■ 2023 캐나다 캘거리 에너지 전시회 -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 에너지 개발·탐사 관련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캘거리 에너지 전시회 한국관' 참가 시 부스임차료, 운송료, 마케팅·홍보 등 지원
  - 일시/장소 : 6월13일(화)~6월15일(목) /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시 스탬피드 파크 센터
  - 전시 품목 : 에너지 개발·탐사 관련 플랜트 기자재 및 장비
  - 사업 규모 : (한국관) 800스퀘어피트 - 부스 1개 100스퀘어피트 (모집) 7개사 내외
  - 지원 사항 : 국고지원, 행정지원, 마케팅·홍보, 현장지원
  - 신청 기간 : **2월20일(월) 18:00** 限
  - 신청 방법 : [2023 캐나다 캘거리 에너지 전시회 -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클릭\)](#) 후 공고문 하단 신청하기 버튼/ 온라인 신청서 작성 파일 업로드
  - 선정 기준 : 수출실적, 기업경쟁력, 일자리 창출실적, 전시 적합성 등 평가
  - 참가비 : 부스 1개 기준 300만원 / 100스퀘어피트 기준  
입금계좌: 우리은행 189-05-003690 / 예금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참고 사항 : 지원에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은 공고문 내 첨부파일 확인
  -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김희은 대리 ☎ 02-3460-3330 / [rosie@kotra.or.kr](mailto:rosie@kotra.or.kr)  
KOTRA 밴쿠버 무역관 김동희 과장 ☎ 1-604-683-1820(202) / [kathryn@kotra.or.kr](mailto:kathryn@kotra.or.kr)

### ■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 인터배터리 2023 연계

- 이차전지 산업의 K-밸류체인 확장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인터배터리 2023전시회와 연계하여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GP) 상담회 개최
  - 일시 / 장소 : 3월15일(수) ~ 3월16일(목) / COEX B홀
  - 사업 규모 : (국내기업) 100개사, (해외바이어) 50개사
  - 사업 내용 : 이차전지 주요 해외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  
\* 주요 해외 바이어 리스트 추후 홈페이지 공유 예정
  - 신청 대상 : 이차전지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 신청 기한 : **2월15일(수)** 限
  - 참가 신청 :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첨부) [참가신청서](#)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첨부 파일 참가신청서 양식 미 제출시 바이어와의 매칭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 참고 사항 : 참가비 무료, 인터배터리 2023 전시회 부스 미 참가기업도 수출상담회 사업 신청 가능
  - 문의처 : KOTRA 그린산업팀 이승민 대리 ☎ 02-3460-7485 / [himin@kotra.or.kr](mailto:himin@kotra.or.kr)  
KOTRA 그린산업팀 오소희 사원 ☎ 02-3460-7498 / [oh010504@kotra.or.kr](mailto:oh010504@kotra.or.kr)



## GVC 소식통 ② : 중국 단기비자 일시 발급 중단 관련 지원 사업 안내

### ■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따른 KOTRA의 긴급 지원 사업

- 지원 기간 : 1. 12일(목) ~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해결 시까지
- 지원 대상 :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對중국 비즈니스 애로 보유 우리기업
- 지원 데스크 주요 내용

#### ① (정보전파) 중국 관련 주요 이슈 모니터링하여 對중국 수출기업 지원 특별페이지 통해 실시간 안내

\* 입국 및 중국 내 이동 관련 제한 조치 및 중국 '23년 新산업진흥, 소비 진작 등 주요 정책 동향 분석 및 공유

#### ② (상담) 기업 애로 접수·지원 통합창구 운영

- 對中 수출기업의 애로 종합 접수 및 상담지원

\* 긴급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완결형 애로해소

- 對中 투자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심층 컨설팅 제공

\* 법률, 회계, 물류 등 현지 한투센터가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비상근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긴급 조치 등 대응책 마련

#### ③ (공급망) 원부자재 소싱 애로 기업 대상 대체거래선 발굴 지원

#### ④ (사업) 중국 출장 애로 기업을 위한 대행 서비스 긴급 지원

- (무료) 수출24 글로벌 대행서비스, 디지털마케팅 사업을 통해 바이어 발굴부터 해외 현장마케팅까지 지원

| 서비스명   |          | 지원내역                           | 기존    | 특별지원(안)         |
|--------|----------|--------------------------------|-------|-----------------|
| 수출 24  | 대리 면담 지원 | ▶ 수출 거래선과 대리 면담 수행             | 45만원  | 무료              |
|        | 전시회 대리참관 | ▶ 중국 현지 전시회에 대리참관(바이어 명함 확보 등) | 45만원  | (단, 기업 당 2건 한도) |
|        | 바이어 실태조사 | ▶ 수출 거래선(사무실, 공장) 대리방문, 현장 확인  | 45만원  |                 |
| 디지털마케팅 |          | ▶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후속지원     | 130만원 | 무료(8주 지원)       |

- (지사화) 해외 현지마케팅 또는 긴급 현장 참여가 필요한 업무에 KOTRA 해외무역관 전담직원을 투입하여 안정화 시점까지 지원

| 서비스명          | 지원내역                                                                                    | 지원기간 | 참가비               |
|---------------|-----------------------------------------------------------------------------------------|------|-------------------|
| 긴급지사화         | ▶ 입국 제한으로 직접 수행이 어려워진 해외마케팅 업무 대행<br>* 출장대행, 거래선 발굴·관리, 인허가 취득 지원, 샘플시연·상담, 현지 유통망 점검 등 | 3개월  | 90만원              |
| 디지털긴급해외출동 서비스 | ▶ 디지털 기기로 실시간 현장을 보여주며 긴급현안지원<br>* 긴급현장대응(장비 시운전, A/S, 현장실사), 바이어면담(제품시연), 전시회 참관 등     | 3일/회 | 25만원<br>(기존 50만원) |

- 문의처 :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특별 페이지\(링크\)](#)

KOTRA 대표전화 ☎ 1600-7119 > 5번 (휴대전화로 연결 시 2번(음성ARS) 누른 후 5번)

\* 대표전화 통하여 세부서비스 상담 요망

## 글로벌 경제지표('23. 2. 8. 수)

## [환율]

|              | '21말     | '22.12말  | '23.1말   | 2/3      | 2/6      | 2/7      | 전일비   | 22말비  |
|--------------|----------|----------|----------|----------|----------|----------|-------|-------|
| ₩/U\$        | 1,188.80 | 1,264.50 | 1,231.90 | 1,229.40 | 1,252.80 | 1,255.30 | 0.20  | △0.73 |
| 선물환(NDF,1월물) | 1,190.00 | 1,265.30 | 1,231.10 | 1,228.20 | 1,252.30 | 1,254.70 | 0.19  | △0.84 |
| ₩/CNY        | 186.51   | 181.44   | 182.51   | 182.90   | 184.84   | 183.46   | △0.75 | 1.11  |
| ₩/¥100       | 1,032.48 | 945.56   | 946.01   | 955.69   | 950.24   | 949.91   | △0.03 | 0.46  |
| Y/U\$        | 115.14   | 133.73   | 130.22   | 128.64   | 131.84   | 132.15   | 0.24  | △1.18 |
| U\$/EUR      | 1.1318   | 1.0617   | 1.0837   | 1.0892   | 1.0790   | 1.0737   | △0.49 | 1.13  |
| CNY/U\$      | 6.3681   | 6.9630   | 6.7521   | 6.7441   | 6.7821   | 6.7825   | 0.01  | △2.59 |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 \*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43.8원, (₩/¥100) 954.1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 구 분              |      | '22년 최저(해당일)    | '22.12.31 | '23.2.7<br>(전일) | '22.2.8   | 전일(2.7比)        | '22년최저比         | '22년말比             |
|------------------|------|-----------------|-----------|-----------------|-----------|-----------------|-----------------|--------------------|
| 원유(두바이)          |      | 71.83(12.12일)   | 78.77     | 78.40           | 80.50     | 2.1<br>2.7%     | 8.7<br>12.1%    | 1.7<br>2.2%        |
| 철광석              |      | 79.50(10.31일)   | 117.35    | 124.10          | 121.70    | △2.4<br>△1.9%   | 42.2<br>53.1%   | 4.4<br>3.7%        |
| 비<br>철<br>금<br>속 | 구리   | 7,000.00(7.15일) | 8,387.00  | 8,891.50        | 8,865.00  | △26.5<br>△0.3%  | 1865.0<br>26.6% | 478.0<br>5.7%      |
|                  | 알루미늄 | 2,080.00(9.28일) | 2,360.50  | 2,486.50        | 2,472.50  | △14.0<br>△0.6%  | 392.5<br>18.9%  | 112.0<br>4.7%      |
|                  | 니켈   | 19,100.00(7.5일) | 30,425.00 | 27,450.00       | 26,810.00 | △640.0<br>△2.3% | 7710.0<br>40.4% | △3,615.0<br>△11.9% |

## [반도체]

|                        | '21  | '22   | '22.11월 | '22.12월 | '23.1월 | 2/2   | 2/3   | 2/6   | 2월(~6) |
|------------------------|------|-------|---------|---------|--------|-------|-------|-------|--------|
|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3.99 | 3.07  | 2.16    | 2.05    | 1.93   | 1.85  | 1.85  | 1.85  | 1.85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29.9 | △23.0 | △33.1   | △40.3   | △48.2  | △51.6 | △51.9 | △52.1 | △52.3  |
|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6.55 | 7.25  | 6.53    | 6.53    | 6.51   | 6.48  | 6.48  | 6.48  | 6.48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14.7 | 10.7  | △11.2   | △12.4   | △13.7  | △15.0 | △15.2 | △15.2 | △15.4  |

##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 구 분  | '21.12.31 | '22.12.30. | '23.1.6 | 1.13    | 1.20    | 2.3     | 전전주(1.20比) | '21년말比 |
|------|-----------|------------|---------|---------|---------|---------|------------|--------|
| 운임지수 | 5046.66   | 1107.55    | 1061.14 | 1031.42 | 1029.75 | 1006.89 | △2.2%      | △80.0% |

##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 구 분 | '21.12.24. | '22.12.23 | '23.1.6 | 1.13 | 1.20 | 2.6 | 2.7 | 전일(2.6比) | '21년말比 |
|-----|------------|-----------|---------|------|------|-----|-----|----------|--------|
| BDI | 2217       | 1515      | 1130    | 946  | 763  | 608 | 601 | △1.2%    | △72.9%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글로벌공급망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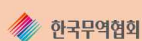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제작기관



###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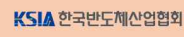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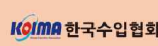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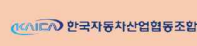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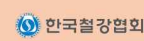
한국전자산업협회



한국생물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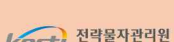
한국정밀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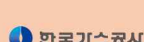
한국자동차기술협회



전라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기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